불자 세상보기

인터넷 게임방의 밤샘 10대들… '마약같은 중독'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

편두통-배뇨장애 시달려…단속 규정강화 절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인터넷게임방. 오락실대신 인터넷게임방에 앉아 날이 새는 줄 모른채 온라인으로 대전(對戰)을 즐기고 게임 문외한도 인터넷게임의 대명사인 '스타 크래프트'를 모르면 '간첩' 소릴 듣는 세상.

이처럼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중고생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게임방에서 밤을 새우고 학교까지 결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대학가나 사무실 밀집지역 등에 처음 등장한 이들 업소는 최근 주택가와 초.중.고교 주변까지 확산돼 서울 시내에서만 5백여 군데, 전국적으로는 1천5백여 곳이 성업 중이다.

요즘 네트워크 게임을 모르면 학교에서 '왕따' 신세가 되기 십상이어서, 이 게임 때문에 밤을 새우느라 학교수업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인터넷 게임 중에는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도 적지 않지만 게임방에서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하지만 이 업소들은 일반 컴퓨터오락실과는 달리 '컴퓨터 대여업'으로 분류돼 아직까지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출입에도 제한이 없다.

특히 이런 게임에 빠져들었던 청소년들은 게임방 출입이 중단되면 환청과 우울 증세를 보이기 일쑤여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게임중독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네트워크 게임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만족하는 내성과 금단현상을 동반, 편두통·배뇨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신의학계에 일찍부터 보고된 바 있다.

므분별한 심야영업으로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를 부추긴다는 이같은 지적에따라 문화관광부는 최근 '인터넷게임방을 일반 전자오락실과 같은 '컴퓨터게임장업'으로 규정, 공중위생법에 따라 규제하라고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IMF 이후 컴퓨터 구입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채팅, E-메일 확인, 인터넷 자료검색, 레포트 작성과 프린트를 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고 있기 때문.

해당업체들은 청소년 심야출입 금지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적절한 자기절제를 통해 생활리듬을 깨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터넷게임방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의 한 게임방.

불교의 눈 작은 즐거움에 안주말자

"조그만 즐거움을 버리고 커다란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면, 깨우침의 큰 즐거움을 위해 작은 즐거움을 버려라."〈법구경〉 한창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인터넷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장래의 큰 꿈을 버리고 작은 즐거움에 안주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사바세계를 '불타는 집(火宅)'에 비유하시면서, 불타는 집 속에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는 아이(중생)들을 급히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아버지(부처님)가 취하는 방편(양·사슴·소가 끄는 놀이용 수레)을 설하셨다. 인터넷 놀이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밖으로 끌어낼 더욱 건전한 놀이는 없는 걸까. "만약 오근(五根)을 내버려 둔다면, 비단 오욕(五欲)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없이 번져 가서, 제어할래야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는 〈유교경〉의 말씀처럼 청소년들의 자제력이 가장 필요하다.

2000년부터 뇌사 인정

불교계 '捨身 보시' 일부 긍정적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돼 온 뇌사(腦死)가 2000년초부터 법적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인도적 정신에 따른 장기 적출 및 이식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이 법률안을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뇌사판정은 가족이 신청하면 실시되며 복지부가 지정하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시민·의료·법조계가 환영하고 있는 '뇌사인정' 입법화에 종교계는 대체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비바시불경〉의 육체적 죽음에 대한 정의를 '호흡이 끊어지고 정신이 떠난 상태(氣絶神逝)'로 표현한 것을 예로 들며, '죽어가는 사람'인 뇌사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거두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처님의 〈본생담〉에 짐승들을 위해서도 눈을 떼어주는가 하면 생명자체를 주고 있는 '사신(捨身)의 보시'를 예로 들며, 사실상의 죽음인 뇌사판정을 통한 장기기증을 긍정하는 불자들도 있다. 생명나눔실천회 박관순 사무처장은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한 육신보다는 성성한 의식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교리적 측면에서는 뇌사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경제난 빌미 아동복지 '벼랑끝'

"수양부모 제도등 국가차원 지원 필요"

한·영 아동복지 세미나

금년 상반기중 버려진 아이와 미아, 사생아, 가출아동 등 요보호 아동수는 6천3백여명.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7백25명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11월 24, 25일 양일간 주한영국대사관이 사랑의 친구들·이화여대와 공동 주최한 '한·영 아동복지세미나'는 한국과 영국, 미국의 아동복지 관계자들이 모여 우리사회 아동현실의 심각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수양부모제도 등 영국의 아동복지제도와 미국의 미혼모가정 지원책이 소개됨으로써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시사해주었다.

영국정부의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바나도(Barnardo)'의 정책조정관 리즈 가렛씨는 주제발표에서 "바나도는 1870년대 산업혁명 여파로 노동에 시달려야했던 어린이들을 위한 고아원 형태로 출발했으나, 1945년 이후 일반 아이들과 유리된 보호시설이 아이들의 성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따라 영국의 아동보호시설은 수양부모제도와 소규모 그룹홈 및 입양제도로 대치되었다"고 밝혔다.

영국의 수양부모제도는 현재 3만여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뤄지며, 정부는 이 가정에 일정액의 양육비 지원을 한다. 그룹홈 역시 지방정부나 자원봉사단체 혹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며 공식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차원의 아동빈곤대책,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아동복지시각의 도입, 법적 제도적 지원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경 기자

정부 '장애인 인권헌장' 선포

정부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장애인 인권선언은 장애인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다. 또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나 자신의 인격과 재산 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도 인권선언에 포함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한국 부의장국에 선출

한국이 일본 교토에서 11월30일 열린 제2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임기 1년의 부의장국에 선출됐다고 외교통상부가 1일 밝혔다. 세계유산위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5명, 보고관 등으로 구성되며 양동칠 駐유네스코 대사가 부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론

禪의 명암

한국불교는 선을 표방하고 있다. 조계종이라는 이름에서 그 정통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선은 본시 세속화된 불교에 대한 반항과 자립의 정신으로 탄생했다. 경전과 의례와 격식, 그리고 기복과 귀의를 포기함으로써 선은 권력과 대중과의 불건전한 유착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북종선에 대해 남종선이 승리하게 된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고, 지눌스님이 불교의 혁신을 위해 결사라는 사적 집단을 조직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은 집단적 조직이 아니라 철두철미 개인적 독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명암이 있다. 모든 약은 독이고, 혁신은 언제나 또 다른 폐단을 몰고 온다. 선은 자기밖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회적 질서이든, 혹은 종교적 수장이든, 윤리적 규범이든 마찬가지이다.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거든 부모를 죽이라." 이 말은 자칫 모든 권위의 원천을 자신에게 돌리고 심지어 사적 자의를 종교적 궁극으로 혼동케 할 수 있다.

조계사의 난투극, 그 속에 담긴 탐욕, 독선, 아집을 보면서 나는 선을 탄식한다. 차라리 소승이 낫지 않았을까. 가난과 청빈, 생명에 대한 외경과 동정을 지켜나가는 것을 가르쳤다면 저 지경이지는 않았을 것을. 대승에 철저했다면 어땠을까. 대중에 대한 지원에 정직하게 기대면서 그에 대한 보답과 봉사를 약속하는, 이른바 '큰 수레'를 이끌었다면 이토록 사부대중을 후벼파지는 않았을 것을.

선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지 않는다. 초점은 개인의 자유 아니면 영원의 축복이었지, 자신이 디디고 선 사회적 공간에 대한 자각은 소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종교적 인간인 동시에 사회적 동물이다. 깊은 산 토굴의 삶도 이미 사회 속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규율에 복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타자를 배려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선의 또 다른 폐단은 일체의 언설과 논리를 포기하는데 있다. 선문답은 일상의 논리적 고착을 떨어내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그것이 공안(公案)으로 공식화되면서 또 다른 질곡을 예고했다. 화두가 대화를 대신하고, 파격이 정상이 되는 곳에서 합리적 설득과 조정, 타협의 여지는 기대할 수 없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고함과 각목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다시금 '선을 넘어서는데' 있다. 근본적으로 승가교육부터 혁신해야 한다. 선원의 명상과 강원의 불교강좌만으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일반의 교육체계를 참조하여 불교교육의 커리큘럼을 새로 짤 것을 제안한다. 거기서 불교의 미래를 구상하고 사업을 기획할 탱천주지(撐天柱地)의 동량이 날 수 있고, 종단의 조직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할 유능한 인재들이 자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부의 인력 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까이는 재가의 신도들, 멀리는 기업이나 행정 쪽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불교는 스님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부대중의 공적 그릇이기 때문이다.

한형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명분없는 싸움 적나라해 질수록 사부대중 자각은 깊어질 것이다"

지나친 한탄과 분노는 사태를 더욱 엉클어지게 만든다. 종권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각목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종교나 교단도 마찬가지였다. 초월적 권위가 탈신화화되고, 세속적 합리성이 건전한 균형을 잡아 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대 한국불교의 자생적 역사, 아직 백년이 안되었다. 명분없는 싸움이 적나라해지고 격렬해질수록 사부대중의 자각은 깊어지고 참여는 활발해질 것이다. 거기에 불교의 희망이 있다. 조계사 대웅전이 그을리고 부서지는 그만큼, 모두의 가슴 속에 법의 칼날이 시퍼런 빛을 내뿜기를 발원한다.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영업부: 0343)445-6090
·FAX: 0343)445-3370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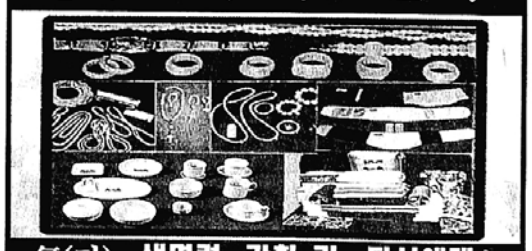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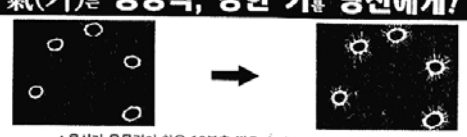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옥검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장이 환발하다
연옥 사용전 1.5μV 연옥사용후 3.0μV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山家 옥만을 꼭 찜에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물 金賞 수상
이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우편판매可)